

인특부



다 의무감, 책임감을 느낀다. "거룩한 만남"은 한 회 방송을 위해 오선의 보살들 11명의 자원봉사자와 리포터 교통통신원이 도움을 줄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송하고, 직접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성금 전달과 함께 정독스님의 격려도 곁들여 회과 용기를 준다.

방송 2백회 '거룩한 만남' 진행 정독스님

"연꽃피우는 불사·3천불자에 감사"

"거룩한 만남은 사바의 진흙속에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지난 26일 2백회 기념행사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불교방송 사회봉사 프로젝트를 "거룩한 만남"의 진행자 정독스님.

방송 가 단신

'개국보살' 비디오로 영상사업부, 복제실도 마련

불교텔레비전 영상사업부(부장 이원덕)는 한국의 명화 표창사와 개국보살 비디오 7종 음집을 지난 28일 출시했다.

또 불교텔레비전은 방송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복제실을 7층 음집실에 마련했다.

뉴스 업무 상호지원 부산BBS 부산일보 불교부산방송은 부산일보



송성일 선수 49재 봉행

(레슬링)의 49재가 지난 18일 수원 용주사에서 봉행돼 가족과 동료 선수들이 송성일의 명복을 빌었다.

4년간 2백여 세대와 중·고·대학생 6백여명에게 도움을 준 '거룩한 만남'은 사회 복지 차원으로까지 발전하여 제작팀의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고있다.

"반인륜적인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볼 때 절망감에 앞서 돕는다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정독스님은 '부처나라 세우기'를 원하는 자 중생 속에 세우라'는 유마경의 한 귀절을 모든 불자들의 가슴에 새기고 싶다고 말했다.

등로금 전액 지원 한마음선원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스님)은 지난 14일 불교텔레비전의 자비봉사프로 '자비의 천수천안' 2회에 방영된 학업중단 위기의 일생일(전국대 2년)군에게 대학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작년 10월에 열렸던 히로시마 아사인제일의 영웅 송성일 선수(레슬링)의 49재가 지난 18일 수원 용주사에서 봉행돼 가족과 동료 선수들이 송성일의 명복을 빌었다.

한국불교 자비 지구촌으로...

캄보디아 난민·미얀마·인도 돕기 불자 적극 동참 '우리는 선우' '기아도움기구' '나를 태워...' 등 앞장

"인류가 안고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자."

세계적으로 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경을 초월한 불자들의 자비손길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선우(02-278-8672) 공동대표 남지심씨는 지난 17일 캄보디아 템플 승정(종교성장관)을 예방, 캄보디아 승정 교육 지원 및 난민돕기를 약속하고 귀국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 캄보디아를 방문한 남지심씨는 프놈펜에서 1백km 떨어진 캄봉의 고아원에 학용품 등을 전달하고 자기발전시설과 지하수개발, 자립을 위해 가족 2백여마리를 전달했다.

남씨는 "홍포트가 지식인을 학습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스님들이 피해를 보아 캄보디아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남지심씨는 지난 17일 캄보디아 캄봉의 고아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불교가 공황상태"며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의 미래를 위해 스님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캄보디아의 교육은 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만

명의 스님과 일반인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이들의 1달 학비는 1인당 2만원으로 우리는 선우는 매달 1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는 선우는 사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미얀마에도 승려의 학비보조를 위해 매달 1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불자들의 세계를 향한 자비 손길은 사회봉사에 미흡하다는 불교계의 인식을 불식시키면서 새로운 신행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자비의 세계화를 펼치는 불교계의 대표적 단체로는 한국 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02-722-0408)가 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불교기아기구는 '생명방생 자비의 종' 저금통을 제작, 전국 사찰

과 종립학교에 보급했다. 이 저금통은 범종형태로 가야한 가족(7인)을 한달간 살릴수 있는 것으로 서울신학은행 전국 지점방에서 접수 받고 있다.

"나를 태워 빛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이홍재.02-725-7932)의 회원 1백40여명도 인도고아 1백여명을 고정적으로 돕고있다. 특히 나빛사는 인도고아들의 자립을 위해 켈카다 인근에 향료, 식료품공장을 세워주는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은 정토회(지도법사 범용스님.02-522-2841)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정토회 국제사업부는 인도 부다가야 두르가푸르 마을에 '수자타 아카데미'를 설립했으며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불미네에 싯달타학교, 쿠시나가라에 춘다병원,바이살리에 암라팔리여학교, 상카시아에 마야양노원건립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다. 이밖에 한국불교전국거법사회(이사장 성순경.02-395-2571)는 중국연변동포들에게 '장농속의 웃보네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준업 기자)

사장·관련자 퇴임 촉구

불방 대책위·전승련

조계종 불교방송 대책위원회(위원장 시현스님)와 전승련회는 지난 21일과 22일 방송사태에 대한 사장의 용의와 관련자 해임조치를 재촉하는 공식입장을 각각 전달했다.

이에앞서 조계종은 지난 20일 총무원, 총회복지, 불교방송 이사회 연석간담회를 열고 방송회생과 대책과 사건의 논의구조를 결집키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불교방송 인사위원회(위원장 강현필 전무)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편성 제작국 김재진 국장을 회부해 제, 김정하 유병지 차장 감급 2개월, 이명준 하현복P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수륙영산 대법회

태고종 27일부터 3일간

태고종(총무원장 박사봉)은 지난 27일부터 3일간 경기도 평택호 국민관광단지(구아산만)에서 '환경보존실천을 위한 수륙영산대법회'를 거행했다.

서울 경기지역을 비롯 전국 각종무원 스님 신도 1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거행된 이번 법회에서 총무원장스님은 "불교기부의 방생법회를 정진적으로 지양하는 한편 7천만 계리가 하나되어 세계화 및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불교도 사단으로서 계몽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방대 후원회 조직

태고종, 정구대 승격 목적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학)은 정구대 승격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했다. 최혜초부원장 및 정태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후원회는 교수 초빙, 장학제도 확충 등을 위해 각 종무원을 비롯 동문회와 연계 후원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정태은 부회장은 "종단과 불교계를 이끌어갈 선두주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 종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종정·원로위원 임기 5년으로

법문종, 종헌종법 개정

한국불교 법문종(총무원장 석일화)은 지난 17일 제9회 임시중앙총회를 갖고 종헌종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된 종헌종법내용을 살펴보면 △감람색의 장삼을 황금색(대중사·종사) 황색(대덕·종대·선덕·사미·사미니) △종정·원로위원의 임기를 7년에서 5년 △총무원장·중앙총회위원의 임기를 5년에서 4년 △사미(니)계의 수계도 종단의 공인계단에서 단일계단으로 확정하는등 전반적인 종헌종법을 개정했다.

18명에게 장학금

법인사 법인장학회

태고종 정주 법인사 법인장학회(회장 조계종)는 지난 25일 법인사에서 제10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신심이 돈독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18명에게 총 8백만원이 지급됐다. 법인장학회는 86년 설립, 지금까지 총 9회에 걸쳐 2백68명에게 4천6백3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태국스님·불자, 한국불교 순례

관광공사 유치...불국사·동국대 정각원등 순례

대규모 태국 관광객이 한국의 불교를 만나러 온다. 한국관광공사(사장 김태연)는 불교를 주제로한 관광코스를 상품화, 태국 관광단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실시되는 한국불교 관광은 태국의 스님과 사인들이 매우 호감을 보여 매달 1백20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관음전 기공식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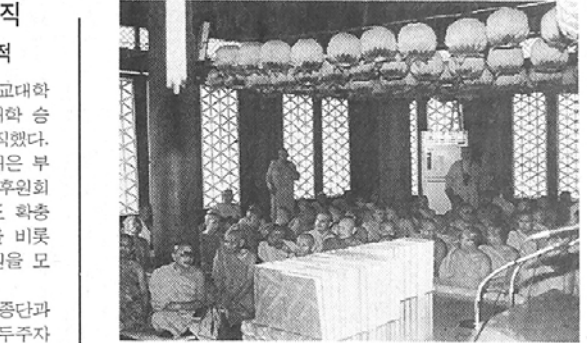
천태종 진주 월경사

천태종 진주 월경사(주지 남정주)는 지난 23일 김도용 종정스님 및 1천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음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신도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온 관음전봉사는 약 1천 7백여평의 대지에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유치원 증무소 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98년 개원할 예정이다.

태국스님·불자, 한국불교 순례

관광공사 유치...불국사·동국대 정각원등 순례

이와관련 스님과 불자로 구성된 2백58명의 관광객이 이미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 경주 불국사와 동국대 정각원 등을 순례하고 돌아갔다. 이들은 특히 관광 방문도중 불국사와 정각원에서 한국불자와 공동으로 예불의식도 가졌다.



한국의 불교관광에 나선 태국의 스님들이 지난 18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법회를 갖고 불상과 불경을 전달했다.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수시접수

회원모집·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단견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강(성오) 합장

회원모집·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단견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권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찾으십시오.

조문객 - 접대음식. 이즈 924-9211, 고번 925-4961

연꽃방.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8-3833 (지하)934-1748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겠습니다.

단청·불상·탱화·계금.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동 4번. 문의처: 467-8329. 호출기: 012-307-8329. 박석언 합장

연꽃잉어화 - 진전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절인의 생기와 영원의 활기를 가져오는 기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악 풍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단견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 645-6224 대구: 952-8711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소매. 초·중·고·대·각종 용기 도자기, 염주, 목탁, 태평, 개구, 단청, 불상, 탱화, 승복, 법복.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9-2450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불서 출판 운주사. 총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30-9372-3. FAX (02) 723-0646

우만(宇滿)화실. 서울 종로구 청계1가길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납입계좌 822-24-0171-328(수입)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강(성오) 합장.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첫솔. 카우로만 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반에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보기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일찍이 홍의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립 5년의 역사로 범종구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스님 및 지도교사를 위한 찬불가 피아노 반주 3개월 완성. 교과 특성 개인지도 원칙. 레슨기간 자유선택. 찬불가를 통한 음악이론 및 실기지도 시청각을 병도수업 실시. 등록: 수시접수(725-7527-9) 장소: 불교교육연구원(종계사 옆) 불교교육연구원